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의 경우는 훌륭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만족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위치 자체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방해될만한 요소는 없었고 그리고 FB라는 교통수단을 타고 밖을 나가는데는 300원정도 요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수업	수업은 1대1 수업이 4시간이 진행되고 그룹스터디 시간이 4시간이 진행됩니다. 1대1 수업은 리딩과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그룹스터디 시간에는 토익스피킹 2시간과 나머지는 MMC와 f2f를 공부하게 됩니다. 1대1 수업 티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티쳐를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그룹스터디 수업같은경우는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조원들과 한달동안 친해지느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수업내용을 따라갈수 있으며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만한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Activity	액티비티 시간은 평일에 활동 액티비티와 주말에 하루 외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평일에 기관내에서 하는 액티비티와 같은 경우는 모두가 만족 할 수 없는 수련회식에 가까운 액티비티라서 불만사항도 있지만 누군가와 친해지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가서 크루즈, 클락 투어, 리조트 투어등은 굉장히 즐겁고 무료로 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을만큼 재미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우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비는 거의 한달동안 2번정도 왔었고 굉장히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긴팔을 입고다녀도 혹은 긴바지를 입고다녀도 괜찮을 만한 날씨라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안전	안전은 정말 걱정 할 필요가 없을만큼 걱정 하지 않아도 안전했습니다. 소매치기만 조심한다면 정말 안전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수리도 즉각즉각 해주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장도 있기에 밤에 수영도 하고 좋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식사를 먹으면서 와 맛없다는 식단자체가 없었고 한식이 그리울만한 일은 전혀 없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교통	교통편같은 경우 택시도 잘되어있지만 택시는 한국과 다를바 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FB 라는 교통수단을 타게된다면 왕복 천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경비	600,000	병원비,개인용돈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준비 할 사항은 여권과 돈만 있으면 되고 티쳐들 선물을 위해서 한국에서 사 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본인은 티쳐들 선물을 하나도 사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현지에서 사기에는 적당히 살만한것도 없고 끝판에는 모두가 돈이 다 떨어져 사기도 어렵습니다. 가기전에 선물을 사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달동안 눈을 다치게 되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전재우교수님과 매니저알렉스형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불안감도 해소되고 한달동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도 주고 티쳐들도 걱정해주고 해서 배려를 잘 받아서 잘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40명과 함께 갔던 어학연수이지만 모두와 친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40명 모두와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게 정말 아쉬웠고 하지만 그룹스터디 조원들과는 끈끈한 정을 유지 할 수있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곳이란 느낌을 받았고 공부조차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유시간에 단어공부라던지 추가적으로 영어공부를 더 하던 친구들도 있고 자극이 되어서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잊지 못할 단기어학연수였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무조건 다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